

파시즘은 무엇인가.<1>

정치장교

밑에 파시즘 어쩌구하는 게시글에 댓글 32개 달린거보고 예전에 다른 사이트에서 끄적인거 다시 읽어왔다.

김용우라는 사람 책에 나오는걸 정리한거고 내가 문장이 좀 지리멸렬한데 이걸 19년도에 쓴거라 더 그렇다.

모르겠는거 있으면 원본 찾아 읽어라.

여기 사람들 모두 나보다 똑똑하잖아?

프랑스 파시즘에 대해 다룬 호모 파시투스란 책에 쓰여있는 내용인데, 정리하는데 실패해서 조금 난잡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1부 파시즘이란 무엇인가에 수록된 글들을 요약한걸로 프랑스 파시즘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잘 아는 분야가 아닐뿐더러, 그쪽은 아마 여러분이 더 잘아실테니 굳이 제가 할필요가...

일단 파시즘이라는 개념부터가 모호한데, 애초에 파시즘에서 파쇼가 이탈리아어로 묶음,결합이라는 뜻이라는 점에서 중심개념보단 운동으로서 뭉쳤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파시즘이 이념이 아니라 단순한 사회현상이라면 그건 또 아닙니다.
파시즘은 서유럽 사상의 전통 속에서 나름대로의 체계를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사회적 이유에 따라 이념은 점차 변하며, 특히 이념이 현실에 적용됐을 때와 체계성 없이 여러 이론을 통합하려할 경우 크게 변질됩니다.
그리고 파시즘은 모두 해당됩니다.
또한 파시즘은 제3의 길을 제시하려했음에도 현대에는 좌파,우파로 환원하려는 태도가 일반적입니다.
또한 파시즘이란 용어를 서로를 공격하는데 쓰거나 에코 파시즘과 같이 이상한 용례를 만들어 혼란시키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파시즘이 무엇인가보다 파시즘이 아닌게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상태가 됐죠.(웃음)
그래서 어디까지를 파시즘 계통 사상이라 할 수 있을지도 아직도 논란이죠.

아무튼 파시즘은 앞서 말했듯이 체계성 없이 여러 주장을 합하려했으므로 파시즘의 성서가 없습니다.
무솔로니와 맑스나 로크와 같은류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독자성이 없다는건 아닙니다.
오히려 파시즘의 독자성은 19세기 말의 다양한 지적경향을 종합하고 이를 들어내는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파시즘은 의회민주주의가 국민통합에 실패하고 프티부루주아와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판단하였고, 맑스주의 역시 내분을 유발한다 보았습니다.

하지만 파시즘은 맑스주의뿐만 아니라 자유주의에도 반대하였고, 이에대한 대안을 모색했기 때문에 단순한 수동적 저항의 산물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파시즘의 독자성, 혁명성, 호소성이 파생됩니다.

파시즘의 대표적인 특징중 하나가 철저한 반자유주의입니다.
파시즘은 18세기에 시작되 19세기를 지배한 '낡은' 자유주의의 정치,사회,문화,정신적 측면을 거부하고 철학적 기반을 공격했으며, 이를 대신할 새로운 세계관과 문명의 수립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에따라 파시즘은 자유주의와 이와 밀접한 개인주의, 의회민주주의, 합리주의, 물질주의를 모두 타락과 분열, 대립과 쇠퇴의 원천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파시즘은 일차적으로 근대성의 산물입니다.
파시즘은 근대의 산물의 대중사회에 파편화된 개인에게 강한 소속감을 심어주기 위한 시도입니다.
이런의미에서 파시즘은 자연적인 인간집단을 파괴하려는 모든 경향에 반대합니다.

파시스트의 관점에선 인간은 태어날때부터 공동체에 속합니다.
인간은 공동체나 조직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항상 공동체와의 연관 속에서 존재 근거를 찾는다 보며 개인은 이론가가 만든 추상덕 개념에 불과하다 간주합니다.
인간은 오로지 가족,인종,민족등의 구성원으로서 우선적 가치를 가지며 자유는 이런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가진다 생각했었습니다.
이때문에 파시스트에겐 자유주의는 일종의 아나키즘이자 무질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파시즘은 합리주의 역시 비판했습니다.
합리주의는 개인주의와 결합하여 모든 진리의 기준을 개인의 이성이라 치켜세우고 이성으로 이해가 불가능한건 개인의 자유의 적으로 간주하고 공격했기 때문이죠.

파시스트의 관점에서 인간 공동체는 자연적이며 전통적이며 심지어 초개인적이며 초이성적이기까지한 실체다. 그것은 이성의 영역을 벗어난 신비적인 실체이며 본능적이고 감정적인 끈으로 연결된 무언가다.

파시스트는 인간은 이성적이지 않고 본능과 감정으로 움직인다고 보았습니다.
또 인간은 감정적이고 본능적인 관계 속에서 귀속감을 발견하고, 산업화와 도시화는 소외된 개인에게 소속감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파시즘의 반합리주의 경향은 대중을 동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했습니다.

과학적 사고는 소수의 자유물이며 부단한 토론과 논증을 요구하기에 분열을 낳습니다.
파시즘의 대중은 지도자의 신화, 민족의 신화, 폭력의 신화. 혁명의 신화 속에 단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민주주의로 불가능한 정치참여의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파시즘이 의식, 상징, 슬로건등으로 대중을 동원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연유입니다.
이점에서 파시즘은 대중사회의 산물이자 대표적인 대중주의 이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파시즘에서 나타나는 행동주의와 반물질주의는 반합리주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파시스트에게 합리주의란 부르주아의 가치관이며 상인의 가치관입니다.
모든 것을 물질적 이익과 연관짓는 이러한 가치관은 평정하고 안이한 삶 속에 가두며 파시즘은 전투와 투쟁을 중시하며 대신 의무감과 희생정신, 규율과 용감성, 그리고 집단 의식을 토해 영웅적 도덕관을 끌어옵니다.

파시즘의 행동주의는 인간과 및 진보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시스트들은 선한 인간과 보성이나 사회의 필연적 진보 따위의 회의적이었습니다.
무솔로니의 표현대로 파시즘은 안이한 삶에 반대하며 또한 물질주의적 행복관을 배격합니다.
파시스트의 과점에서 물질적 풍요에서 행복을 찾는 태도는 인간을 먹고 살찌는데 만족하는 동물로 격하시키고 단순히 식물적인 존재로 만드는데 불과합니다.

파시즘의 행동주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면서 동시에 그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성향이 강합니다.
이런점에서 파시즘의 행동주의는 행동, 투쟁을 위한 투쟁의 성격을 가집니다.
파시스트들은 '삶 그 자체를 하나의 투쟁'으로 파악합니다.
또한 파시즘은 이론적 추론에 따른 닫힌 세계관과 교조주의에 반대합니다.
이론은 행동 뒤에 따르는 것이지 행동을 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시스트에게 삶은 지속적인 과정이며 끊임없는 생성 그 자체입니다.
무솔로니가 파시즘은 역동성이라 선전한 것도, 대부분의 파시스트들이 스스로 정당의 구성원이라기보다 운동이라 표현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연결됩니다.

파시즘이 기본적으로 젊은이들의 운동이라는 것 역시 행동주의와 연관됩니다.
파시즘은 낡은 19세기 부르주아적 세계관에 저항하는 20세기의 운동이라는 점에서 새롭고 젊을 뿐만 아니라 젊음은 무엇보다 열정과 행동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파시스트에게 의회민주주의는 자유주의의 여러 양상이 정치적으로 구현된 것입니다. 따라서 파시즘은 이를 전면 거부합니다.
파시즘에게 의회민주주의는 부르주아의 금권 지배 체제이며 인간 사회를 파편화된 개인의 총합으로 여기는 아나키즘입니다.

의회민주주의 체제 아래 정권 쟁탈을 위해 경쟁하는 여러 정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금권과 결탁하여 대중의 욕구를 적절히 대변하지 못한다 봤습니다.
파시스트의 관점에서 의회민주주의는 분열의 원동력이며 대중의 욕구를 대변 못하는 피상적 체제이자 물질주의가 빚어낸 타락과 부패로 간주했습니다.
또한 의회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무엇보다 중시하여 외국인의 침투를 초래했으며 이들은 체제의 보호아래 민족 속 민족을 구성하고 정치가를 매수하여 민족의 힘을 약화, 파괴 시킨다고 봤습니다.
이처럼 파시즘은 계몽주의의 주요 전통을 거부하며 새로운 대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최초의 주요한 표현 가운데 하나'로 파악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스테른헬의 견해는 타당성을 지닙니다.

파시즘은 자연적인 인간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민족주의가 파시즘의 핵심적인 요소를 차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파시즘의 민족주의와 자유주의의 민족주의는 다릅니다.
자유주의적 민족주의는 프랑스 혁명과 전통적 자연권 사상을 바탕으로하는 사상 체계를 간직하고 있으며 외세로부터의 독립과 민족자결주의등을 표방했습니다.또한 여러 민족집단을 인류의 구성요소로 간주했으며 다른민족의 권리 역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파시즘의 민족주의는 일단 반자유주의적입니다.
개인의 자유보다 민족의 통합을 우선시하고 개인의 이해 관계를 민족의 이해 관계에 복속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파시스트에게 민족은 감정적 혈연적 유대로 이뤄진 실체입니다. 그것은 가족의 총합이며 동시에 확대된 가족이며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이들은 모든 유기체가 그렇듯 기능과 능력에 따라 위계 서열을 이루며 불평등하게 조직되어야한다고 간주하며 조직 구성을 위해 불평등이 전제되어야하고 평등은 무질서를 위미한다 생각합니다.
또한 파시즘은 자민족의 우월성을 위해 타민족에게 희생을 요구합니다.

민족적 통합을 위해 파시즘이 주목한 문제는 노동문제입니다.
대부분의 파시스트들은 자본주의 체제내 노동자들이 처한 상태를 비판했습니다.
파시스트들 눈에도 자유주의 체제하의 노동자들은 부르주아의 착취에 저항할 수단을 갖추지 못하고 비참한 생활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부르주아의 체제인 자유주의 국가가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노동자들과 국가를 멀어지게하며 격렬한 계급투쟁과 반애국주의적,국제주의적 경향이 대두된다보았습니다.

조국은 자본가들보다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더욱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부르주아는 자본을 가지고 있지만 자본이 없는 노동자는 조국아 생조를 담보해주는 필수적 기반이라 파악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파시스트들에게 노동자들이 민족 공동체에 재통합되는 것은 민족 전체의 단결과 통합의 근본적인 전제로여겼습니다.

파시스트들은 노동 문제 혹은 사회 문제의 해소를 곧 민족 문제 해결의 한축이라 생각했죠.

당시로서 이런 관점이 새로운게 아니었으며 특히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유럽의 극단적 민족주의자들은 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프루동 서클과 라 루파지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학자들은 이러한 운동들을 가리켜 원 파시즘 혹은 전 파시즘이라 부릅니다. 아무튼 파시스트들은 노동문제와 민족문제를 연관지어 함께 해결하고자한, 19세기의 두 거대한 조류인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비판적 계승자를 자처했으며, 노동자에겐 사회주의로 자본가에겐 민족주의로 다가갔습니다.

생각했지만 책에서 파시즘을 부르주아의 대리자로 보는 시각, 맑스주의의 일부 혹은 파생으로 보는 시각, 단순한 사회적 현상으로 보는 시각이 모두 소개했습니다, 물론 바로 다음장에서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대충 설명하자면 이런 시각의 연구들도 도움이 되지만 파시즘의 이러이러한 특징을 간과하고 있다 정도입니다.

파시즘이 노동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시다시피 동시에 반 맑스주의 사상이기도합니다.

파시즘은 국제주의적 성격 때문에 반 민족주의적이며 프롤레타리아 독제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르주아 단일 체제인 자유주의 체제와 마찬가지로 프롤레타리아 단일 체제인 파시즘 역시 민족의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 파악했습니다. 더불어 파시즘은 평등주의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게 파시즘에게 무슨 뜻인지 기억하시나요?

아나키즘입니다.

그리고 파시즘을 밟아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파시즘은 자본가와 기존 자본주의 체제를 강하게 비판했지만 부르주아 계급의 독점적 지배 체제와 물질주의적 세계관을 거부했을 뿐 그 성과는 인정했고 경제부분에서 자본가의 역할을 긍정적으로여겼습니다. 이들은 자본주의 자체는 필요하다 생각하였습니다. 파쇼들이 즐겨 사용한 생산자라는 표현 역시 자본가와 노동자를 포괄하는 말이었습니다. 때문에 사유재산 제도에 손을대서라도 자본주의를 해체하겠다는 공산주의와는 상극입니다.

파시즘은 노동자와 자본가를 모두 포함한 민족 전체를 포괄하려한 운도이었으며 동시에 민족 주체의 반자유주의 혁명이었습니다.

파시즘은 자유주의와 공산주의를 동시에 뛰어넘는 유토피아를 꿈꿨습니다. 파시즘은 이에대한 대안으로 전제주의적 국가와 코포리티즘을 제시했습니다. 자본주의를 폐지하지 않으면서 계급이 아닌 직업별로 나누는 조합은 노동자와 자본가를 구성하려했습니다. 파시스트들은 계급별 조합이 무한투쟁을 초래해 민족을 약화 시키고 지업별 조합은 두 계급이 상호 견제와 협력을할 수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이러한 방향은 자본주의의 발전과 나아가 민족의 발전을 초래할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경제분야에서 코포리티즘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선 기존의 국가체제론 불가능합니다. 파시스트의 국가는 어떤 계급에도 속하지 않는, 따라서 모든 계급의 이해를 반영하는 국가, 즉 민족적 국가를 꿈꿨죠. 민족적 국가는 부르주아 독점 체제를 붕괴 시키고 본연의 일을 충실하게 수행하게하고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이해를 조절하여 민족 전체의 이익을 도모할 것이며, 이점에서 파시즘의 경제적 영역과 정치적 영역의 분리 그리고 정치적 영역에 대한 경제적 영역의 종속을 목표로하였습니다. 또한 파시스트 국가는 특정 계급의 대표자나 정당의 지도자 대신 민족적 지도자가 대표하고 통치합니다. 파시즘은 영웅주의와 희생정신으로 무장하여 민족 전체의 의지를 구현합니다. 지도자는 곧 국가이자 민족 전체의 구현이며, 대중은 지도자로 상징된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여 몰락하고 있는 민족 공동체를 갱생 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파시즘이 구상하는 국가는 무솔로니의 표현을 빌려 ‘자체의 의식을 가진’ ‘윤리적 국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 경제 외에도 지적, 도덕적, 정신적 영역까지 총괄합니다. 파시스트에게 ‘모든 것은 국가 속에 있으며, 인간적이고 정신적인 것이라면 국가를 넘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파시즘은 ‘전제주의적이며, 모든 가치를 종 합하고 통합한 파시스트 국가는 인민의 삶 전반을 해석하고 발전시키며 힘을 부여해준다’는 것입니다.